

2025
청년키움
프로젝트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Artway

여섯 개의 생각
SIX THOUGHTS

권아영 김도영 김산 이하경
문관우 차오

KWON AYOUNG

KIM DOYOUNG

KIM SAN

LEE HAGYEONG

MOON KWANWOO

CHAO

대구아트웨이 기획전시실 2~4

2025.6.9.-8.23.

관람시간

월~토 / 10:00 ~ 19:00

문의

053-430-5655

KIM DOYOUNG

* 김도영

흐르는 강물처럼



김도영의 작업은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한다. 작가에게 인생은 깊이와 알음을 오가며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 거센 물살에 휘말리기도 하고,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체념을 경험한다.

물은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김도영은 변화무쌍한 물의 속성을 빌려 삶의 감정과 기억, 선택의 흔적을 담아낸다.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보내고, 때로는 반짝이는 윤슬처럼 스치듯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을 담는다. 그렇게 작가는 강물 위로 투영된 우리의 삶을 조용히 비추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제안한다.

김도영의 작업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며, 관람자에게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조용한 울림을 전한다.



아득한 순간. 장지에 채색_117x546cm_2025



Flow_장지에 채색_43x33.5cm_2024

MOON KWANWOO

문관우

하루살이 예술



문관우의 예술은 매일 갱신한다. 작가는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루 단위로 작업을 완성하며,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실천을 매일 반복한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인 듯, 하루 24시간 안에 완결되는 이 창작 행위는 시간의 물리성과 창작의 강박이 충돌하며 빚어낸 조각적 수행이다.

작업실은 5평 남짓, 주어진 시간은 오직 24시간. 그 안에서 작가는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매일 하나의 조각을 만들어낸다. 이 조각들은 반복적이면서도 매번 조금씩 다르며, 시간이라는 균질한 단위를 조형 언어로 바꾸는 실험이자 일상의 리듬을 기록하는 행위로 기능한다.

반복되는 조형의 형상은 원형, 혹은 병 형태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히 확장 가능한 내적 강박과 조형적 집요함이 녹아 있다. 이 꾸준함은 결국 문관우만의 시그니처가 되었고, 하루 24시간으로 조율된 예술적 삶의 구조는 어느새 그의 작업 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이 되었다.

하루를 단위로 삼아 예술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작가는 이를 '하루살이 예술'이라 명명한다. 그러나 이 하루는 결코 가볍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축적된 절제와 집중의 결과는, 오히려 무게감 있는 형태로 공간을 점유하고, 관람자에게 시간과 예술, 반복과 지속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백색오브제_D1백자토 1250도 소성_17×18×10cm_2024



주철 병케이스 작업_주철_8×8×18cm_2024

주철 병케이스 작업_주철_11×11×15cm_2024

KWON AYOUNG

✧ 권아영

당신의 새벽은 어떤가요?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고요한 시점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감정으로 다가온다. 어떤 이에게는 설렘과 희망이 깃든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어제의 무게와 감정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연장의 순간일 수 있다. 새벽은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진다. 끝과 시작, 어둠과 빛 사이에 선 시간.

권아영은 이러한 새벽의 감각을 푸른빛의 화폭 위에 옮긴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빛의 기운, 가시지 않은 감정이 부유하는 공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희망의 조짐과 설렘의 여백. 작가는 이 짧고도 깊은 순간을 포착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만의 새벽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림 속 새벽은 조용히 말을 건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권아영의 작업은 하루를 열어젖히는 감정의 문턱에서, 우리 각자의 새벽과 만나는 시공간을 마련한다.



서화(曙花)새벽의꽃_캔버스에유채_80.3cmx116.8cm_2022



여름 산책_캔버스에 유채_65.1x50.0cm_2023

LEE HAGYEONG

✧이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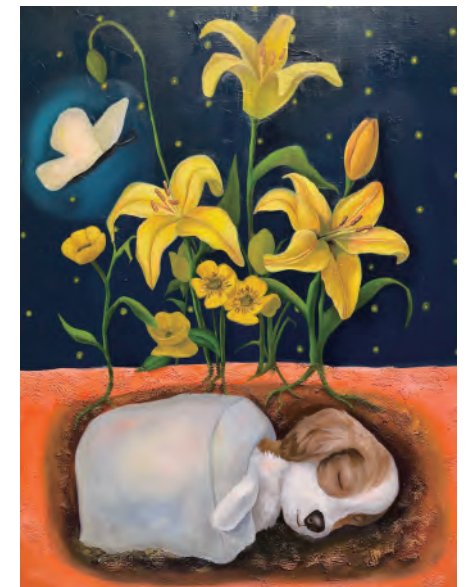
동물 수난시대



이하경은 의인화된 동물의 시선을 통해 인간 사회의 이면을 날카롭고도 유머러스하게 응시한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유난히 좋아했던 그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팬더, 북극곰, 기린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작업의 주인공으로 끌어온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상징이나 장식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의 이기심을 고발하는 화자이자 증언자다. 이하경의 화면 속 동물들은 때로는 환경오염을 일으킨 인간을 훈계하고, 때로는 이상기후와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려 한다. 생명을 가볍게 여겨 쉽게 동물을 버리는 인간에 대한 단죄도 마다하지 않으며, 인간과의 공존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동물들은 언제나 강한 존재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구원자의 얼굴을 한 동시에, 인간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도 연약한 존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 이중적인 위치는 이하경의 작업이 단순한 풍자를 넘어 복합적인 정서와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지점이다. 그의 동물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 무심코 지나친 폭력, 그리고 잊고 지낸 생명에 대한 감각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타인의 편집물_Oil on canvas_145.5 x 89.4cm_2025



그리움에게_캔버스에 유화 및 젤스톤_116.8 x 91cm_2025

KIM SAN

✖ 김산

지구인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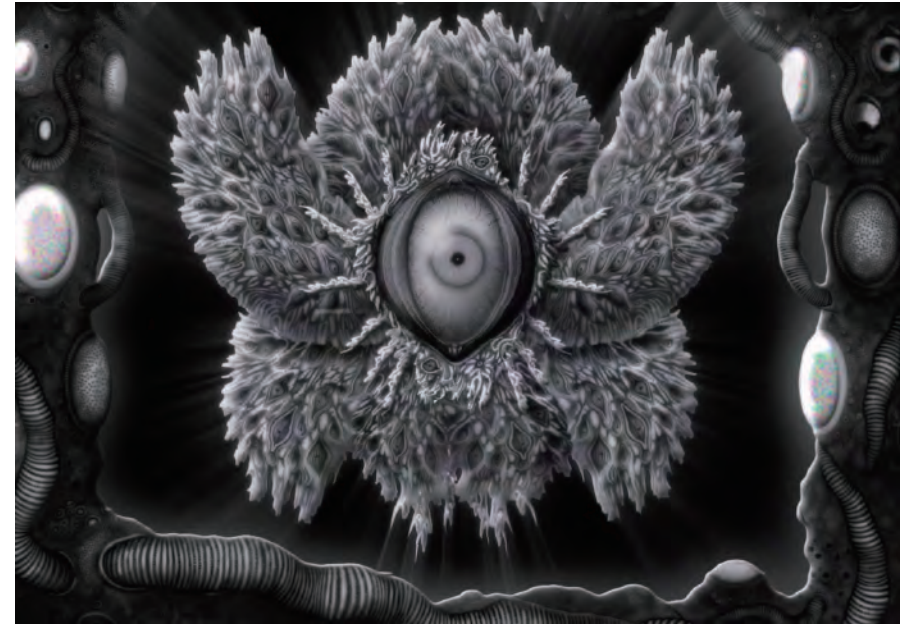
김산의 작품 <지구인들아(2022)>는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가자,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신호다. 작가는 인간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인간은 지구인의 모습을 한 신이자 외계인, 그리고 스스로 우주이기도 하다.

김산은 스스로를 '스타시드'라고 말한다. 스타시드는 타 행성에서 온 영적 존재로, 인류의 치유와 지구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이곳에 태어난 존재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은 그가 인간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이 스며 있다.

작가에게 인간은 몸과 정신, 영혼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다. 우리는 오감과 육감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언어와 몸짓이라는 제한된 수단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진정한 자아를 온전히 전달하기엔 너무도 부족하다. 그 틈에서 오해가 발생하고, 미움과 갈등이 생겨난다.

<지구인들아>는 그런 세계 속에서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김산은 인간의 언어로 번역되기 전에 왜곡되어버린 감정들과, 전해지지 못한 마음의 진심을 예술로 전달하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시각적 언어를 통해 감각 너머의 차원을 탐색하며, 언어를 초월한 영혼 간의 교감 가능성을 실험한다.

그의 화면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단절된 세계 속을 부유하는 영혼이자, 서로를 알아보길 희망하는 또 다른 자아이다. 이들은 작가 자신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다. <지구인들아>는 결국, 하나의 신호다. 이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들리는 조용한 외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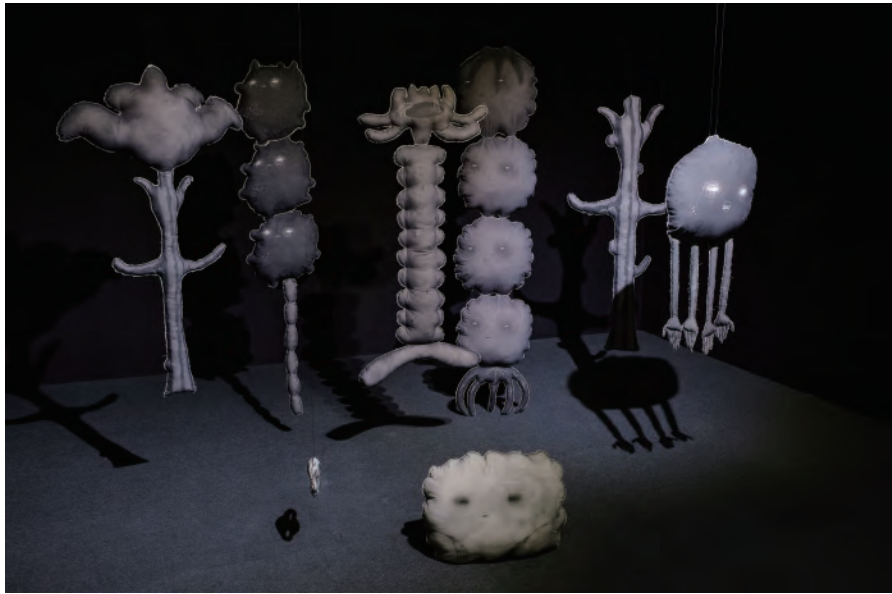
우주천사_단체널비디오_1600x1124px_2024



지구 감옥 탈출 가이드 Ver.1111_단체널비디오_1920x1080px_2025

CHAO ✧ 차오

심지 않은 씨앗



차오는 개인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예술의 중심에 놓고 드러내며, 시각적 언어로 풀어낸다. 작가는 상처로부터 파생된 부정적인 감정과 현상들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의인화한 캐릭터들로 구성된 내면의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 감정 캐릭터들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작가 자신의 감정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이자 치유의 동반자다. 때로는 이상적인 공간에 머무르며 상처를 관조하고, 때로는 현실 속을 친구들과 함께 헤쳐 나가며 고통을 이겨낸다. 각 캐릭터는 불안,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의 파편이자, 그로부터 회복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차오의 작업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과장하고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공감 가능성을 확장하는 예술적 실험이다. 개인적인 서사는 더 이상 은폐의 대상이 아니라, 타인과 연결되는 하나의 다리가 된다. 그렇게 '심지 않은 씨앗'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감정들의 이야기이자, 스스로를 치유해나가는 여정의 기록이다.



기생의 시간_광목천, 솜, 실_가변설치_2025



기생 생태계_광목천, 솜, 실_100x100x2cm_2025



김도영 / Kim Doyeong (b.1996)

학력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졸업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전공 수료

개인전

2025 <숨결이 머문 자리>, 봉산문화회관, 대구
2024 <반짝이는 순간들>, 대구아트웨이, 대구
2024 <멈추지 않는 흐름>, 예술공간 공동선, 대구

단체전

2025 <젊은작가 유스토피아>, e-아틀리에, 대구
2025 <미리 봄-봄> 50인그룹전, 이글락아트스페이스, 서울
2024 <상견: 한중연합전>, 창미술관, 항저우
2022 아트프라이즈 강남, 논현가구거리, 서울
2022 부산랩아트페어, 523갤러리, 부산
2022 <환희의 순간들>, 20계단문화관, 부산
2022 <공백지점>, 수향청춘맨션, 대구
2021 <Keep It Real>, 프리뷰청문, 대구
2021 <SEEA2021>, 한가람미술관, 서울
2021 <물의 언어>, 보이드갤러리, 대구

이메일 주소 : topaz756@naver.com
인스타 계정 : @K_ddoing_art

문관우 / Moon Kwanwoo (b.1987)

학력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석사 졸업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학사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 석사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청년키움프로젝트 <작업진열>, 대구아트웨이, 대구
2023 <집합>, 봉산문화회관, 대구

단체전

2024 달성화석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 <그래도, 낭만>,
달성화석박물관, 대구
2024 달성현대미술제 <그대도, 낭만>, 강정보디아크, 대구
2024 <SHOWUS>, 샹갤러리, 창원
2023 <ART FINE THANKYOU>, 오모크갤러리, 대구
2023 한국현대조각초대전, 박인환문화관 야외광장, 인제
2023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MBC 호반광장, 춘천
2023 경북대도서관x미술학과 <re-form>전,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대구
2023 동촌조각축제, 아양아트센터, 대구
2022 제27회 경북조각회 초대전, 아양아트센터, 대구
2021 대학문화예술키움기획전 <KEEP IT REAL>,
경북대학교 센트럴파크, 대구

이메일 주소 : rhksdn6523@naver.com
홈페이지 주소 : www.moonkwanwoo.com

권아영 / Kwon Ayoung (b.2000)

학력

계명대학교 회화과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꽃이 피는 시간>, 호텔인터볼고, 대구
2024 <하루의 모른 소란은 비와 풀에 맡겨>, 앞산갤러리, 대구
2024 청년키움프로젝트 <Naturalism: 자연주의>,
대구아트웨이, 대구

단체전

2024 아시아프, 옛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서울
2024 창원아시아미술제 <파름파'움>, 315아트센터, 창원
2024 갤러리태오 기획전 <10만원 아트페스타>, 갤러리태오,
인천
2024 청년작가 초대전 <봄의 향연>, 315아트센터, 창원
2024 제 4회 아티스타트 <ARTSTART>, KT&G상상마당, 부산
2023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전 <FLARFORM>,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23 URBANBREAK x BUSAN, 벅스코, 부산

아트페어

2025 대구아트페어, 엑스코, 대구
2023 대구국제블루아트페어, 엑스코, 대구

수상경력

2022 LINC 3.0 Open Campus, 대구광역시교육감상
2022 계명대학교 융합디자인 성과를 발표 2등상

이메일 주소 : kwonay2000@naver.com
인스타 계정 : @xxayumu_u

이하경 / Lee Hagyeong (b.2001)

학력

영남대학교 회화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청년키움프로젝트 <동물 수난시대>, 대구 아트웨이, 대구

단체전

2025 <LOTUS RISING>, 로터스갤러리, 부산
2025 <바라 봄>, 현대아울렛 대구점, 대구
2025 <흐름의 교차>,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23 <ROLL OUT>, 천마아트센터, 경산
2021 <Canverse>, 온라인 전시, 대구

이메일 주소 : gkrud6724@naver.com
인스타 계정 : @lee.hagyeong

김산 / Kim San (b.1999)

개인전

2024 청년키움프로젝트 <지구인들아!!>, 대구아트웨이, 대구

단체전

2025 <USTOPIA>,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

이메일 주소 : kaejusane@naver.com
인스타 계정 : @kaejusane

차오 / Chao (b.1993)

학력

계명대학교 회화과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심지않은 씨앗>, 대구아트웨이, 대구

단체전

2024 <Loveology>, 리즈아트갤러리, 서울
2024 <셀버디스토피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23-24 <자신으로 살아가며>, 포스텐노, 제주
2023 ASIAF, 홍익대학교, 서울
2017 <화기애애>, 롯데갤러리, 대구

이메일 주소 : 0542518982@naver.com
인스타 계정 : vov.non

2025 대구아트웨이 기획전시2

<청년키움프로젝트>

여섯 개의 생각 SIX THOUGHTS

관람안내

월-토(10:00~19:00) /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발행처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발행인 박순태

발행일 2025.6

운영총괄 이주현

기획 안은지

지원 장명운, 이우진, 권준현

편집디자인 및 사진 복성로사진관

대구아트웨이 daeguartway.kr

420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0 범어역 지하

tel 053-430-5655 web daeguartway.kr sns @dg_artway


© 대구아트웨이, 2025

본 도록에 실린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작가와 저자 및 대구아트웨이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ISBN 979-11-90514-24-8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Artway